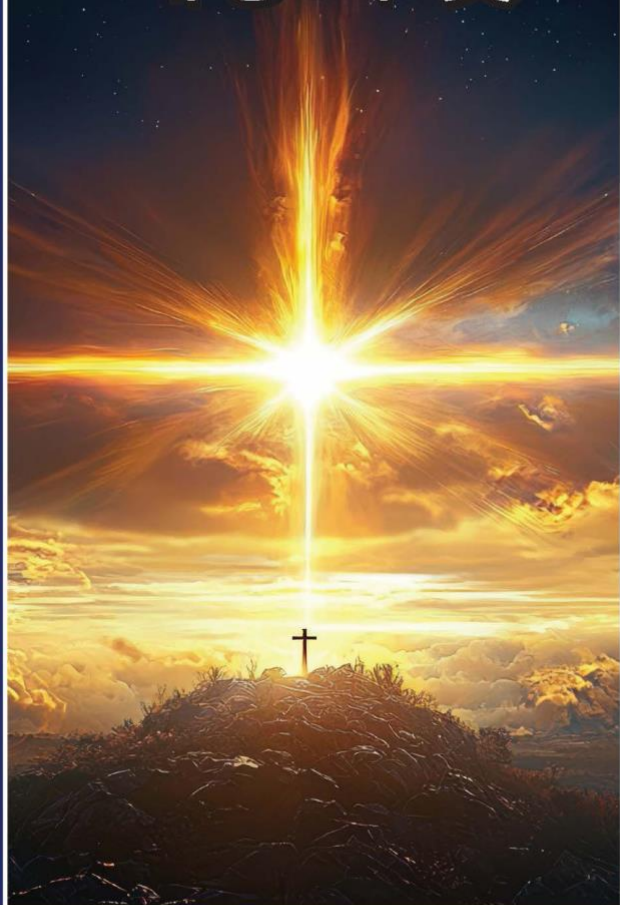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인류를 향한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1:5).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빛 가운데” 걷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걷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요한일서 1:6, 7

이 상징적인 어둠은 죄로 인해 인류 위에 드리워졌는데, 우리의 첫 조상들이 최초의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을 초래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즉, 온 인류]이 죄인이 되었나니”라고 기록했다.

(로마서 5:19). 이는 에덴 동산 시절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선지자 다윗은 이를 밤의 경험으로 비유하며, “눈물은 밤을 지내도”라고 기록한 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위로의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시편 30:5

이처럼 길고 음울한 밤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또한 희망 없이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증인들을 두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으로든, 아니면 그분에 관한 자신들의 신실한 증언으로든, 어두운 곳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이 증인들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찾고 섬기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그분을 찾던 이들에게는 종종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7:27

대홍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를 위한 증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의의 전도자”였다고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5). 그는 당대의 세상을 개혁하지는 못했지만, 다가올 대홍수와 관련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세상의 빛

빛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의를 위해 취한 입장은 대홍수의 도래로 인해 옳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들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이는 그들의 증언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그 옛날의 모든 신실한 증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54:17

요셉의 원수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이집트로 보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그는 이집트의 통치자이자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얼마나 놀랍게 드러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 긴 설교를 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한 믿음의 삶과,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전했던 “때맞춘 말씀”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장황한 설교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었으니,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옹호하시고 그의 신실함에 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가 이집트의 권력을 잡게 되자, 당시 그 땅에 살며 수가 크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주님께서 백성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에는 무력했으나, 주님의 편에 충성스럽게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재앙이 잇달아 이집트인들에게 내렸고, 마침내 그들의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 닥쳤다. 그러자 왕은 히브리 아이들이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다시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백성을 위해 홍해에 길을 열어 주셨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휩쓸리게 하셨다. 그때 그 위엄 넘치는 구원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분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세상의 빛

여호와와 나의 힘과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출애굽기 15:1, 2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그분께 온전히 신뢰할 만큼 깊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거부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표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들을 상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이 될 성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십 년 동안 너희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르지도 않았다.” (신명기 8:4). 모세는 광야 여정 동안 백성을 돌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를 잊을까 두려워하며 “너희를 광활하고 험한 광야,

목마르고 물 한 방울 없는 땅,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명기 8:15 이스라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셨으며,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 일들을 통해, 비록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또 다른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도 여전히 사실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성벽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새화되어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를 해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고개를 들어 보니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세상의 빛

보았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수 편입니까?’”
여호수아 5:13-15

칼을 뽑아 든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군”, 즉 여호와의 천사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전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시를 따랐고, 성벽은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호수아 6:27

주님께 영광을 돌린 또 다른 놀라운 승리는 기드온이 삼백 명의 소수 부대를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의 삼백 명은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토기 그릇을 깨뜨려 어둠 속에서 햇불의 빛을 비추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의 칼을 동료에게로 돌리시니, 군대가 도망쳤다.” 사사기 7:20-22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시험을 마련하여,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인지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태워 버리는 분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로 합의되었다.

그날 카르멜 산과 그 주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괴로워하며 바알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더 크게 외쳐라! 분명 그는 신이겠지! 어쩌면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바쁘거나, 여행 중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고 있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른다.” 열왕기상 18:27

세상의 빛

바알의 제사장들은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신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이 행할 시험을 지켜보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워, 제단과 제물을 물로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주께서 하나님이지며, 제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백성 이 주께서 하나님이지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18:36, 37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웅변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 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활아 버렸다.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지니이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지니이다.” 열왕기상 18:38,39

아시리아 군대의 패배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은 침략 전쟁을 벌이며 예루살렘을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자는 다시 보내졌으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예루살렘은 앓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도 앓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곧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고잔, 하란, 레제프, 그리고 텔 아사르에 있던 에덴 백성들의 신들—이 과연 그들을 구원했느냐? 하맛 왕이나 아르파트 왕은 어디에 있느냐? 라이어, 세파르바임, 헤나, 이바의 왕들은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하 19:10-13

이것은 센나케립이 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노예로 삼으려는 계획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에 따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룹들 사이에 보좌를 두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땅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 주님, 산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산헤립이 보낸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앗수르 왕들이 이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파괴했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빚은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땅의 모든 왕국이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열왕기하 19:15-19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선지자와 왕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앗수르 군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이에 앗수르 왕

산헤립은 떠나 니네베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다.”
열왕기하 19:20, 34-36

바빌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분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충실한 소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들을 개별적으로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다니엘 과 그의 세 젊은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섬기게 된 “내시장”은 그들의 이름을 벨테사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 1:6,7

다니엘은 “마술사들과 점성가들, 주술사들, 칼데아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실패한 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떠올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왕 앞에서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되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네 하나님이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님이시며,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시니, 네가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으니”라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2:47

그 후 다니엘은 바빌론 전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되었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관장하는 총독”이 되었다. 다니엘은 이에 따라 세 젊은 친구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며 왕들의 주”라는 자신의 고백을 금세 잊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최고 통치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왕국 전역에서 자신의 신들을 숭배받기를 원했다. 그는 세속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상징하는 거대한 우상을 세웠다. 그는 정해진 신호가 울리면 왕국의 모든 관리들이 이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기로 했다. 보아하니 다니엘은 “왕의 성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서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이 히브리인들이 임명받은 지위를 시기하던 원수들이, 그들이 왕의 황금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세 히브리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어 그 보고가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그들은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만약 여전히 칙령을 거역한다면 반드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왕 앞에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며, 폐하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분이 그러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폐하, 우리가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폐하께서 세우신 금 우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16-18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히브리 청년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불길이 너무나 맹렬하여 그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은 왕의 신하들은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 히브리 청년은 신성한 능력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 후, 왕은 자신이 현명하게 행동했는지 다소 확신이 서지 않았던 듯, 불길이 다소 가라앉자 불타는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세 히브리 청년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3:25). 그들을 묶었던 밧줄들 만이 타버렸고, 이 때문에 왕은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왕은 그들을 불길에서 불러내어 말하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분은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신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기 위해 몸을 바친 그분의 종들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자들은 토막 나게 하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3:28, 29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신실한 종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종 주변 나라들의 눈앞에서도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신 이 감동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설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께 대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친히 이 관점을 우리를 위해 매우 명확하고 아름답게 요약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너를 형성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홍해를 건널 때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강을 건널 때[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물이 너희를 휩쓸지 못하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를 걸을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에게

불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요, 너희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집트를 랜섬으로 주었고, 너희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세바를 주었노라.” “나, 바로 내가 여호와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이방 신이 없을 때에 선포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나타내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1-3, 11, 12

이 계시를 담은 장의 중간 구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관계 또한 그분의 영광을 증거할 것임을 밝히십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말하리라, ‘내어 놓으라.’ 남쪽에게 말하리라, ‘막지 말라.’ 먼 곳에서 내 아들들을, 땅 끝에서 내 딸들을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형성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흠어진 이스라엘의 재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끝에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중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신 주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요, 대신 ‘북방 땅과 그가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신 주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을 잡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을 사냥하리라.”
예레미야 16:14-16

지난 세기 동안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가적 주권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불신앙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이 놀라운 예언들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방 나라들로부터의 이 출애굽은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에 비유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그들의 동기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믿음의 부족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다시 모이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 20:33-37의 예언이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지는 진노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내가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지는 진노로 너희를 그 백성 가운데서 이끌어 내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아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그 백성의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변론하리라. ... 내가 너희를 징계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너희를 언약의 결속으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진노”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백성의 광야”로 이끌려 갑니다. 이 표현은 돌아온 포로들이 한동안 주변 세상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불신 속에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면하여”

간청하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청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된 후에야 비로소 “언약의 결속”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에 고향 땅으로 회복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1:31-34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징계의 “막대기” 아래로 이끌려 가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예언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현재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북쪽과 다른 지역에서 침략자 무리가 몰려와 그들을 공격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의 지도자를 상대로 “전염병과 피로” 개입하시며, “그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백성에게 쏟아지는 비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내리시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38:22

그 결과 열방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39:7은 “그리하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라.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인 줄 알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셨듯이, 장차 다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미덕을 알리기에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갈대를 사 오지도 않았고, 너희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내게 아낌없이 바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죄로 나를 괴롭혔고, 너희의 허물로 나를 지치게 하였다. 나,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지워 버리고,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사야 43:24, 25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다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며 이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리니, 그가 야곱에게서 불경건을 제거하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실 때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원수이지만, 택하심에 있어서는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여러분이 이제 그들의 불순종 덕분에 자비를 받았듯이, 그들도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자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로마서 11:26-33

수 세기에 걸친 인내로운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서는 열국 가운데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다시 자기께로 데려오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목적을 위한 그들의 기여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휘하게 한 그들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복음 시대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마태복음 5:14).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징벌하시는 데에 기적적으로 그 손길을 나타내시던 시대는 급속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하나님의 전형적인 백성들은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다”라는 운명적인 말씀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마태복음 23:38). 그 후 하나님의 빛은 다른 통로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비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지도자이자, 대장이며, 선구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으실 것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자신의 대리자들, 즉 사신들에 의해 이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들을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순교,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다 목숨을 바치는 것을 묘사합니다. 복음 시대 동안

신실함은 죽음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죽음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약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이 시대의 초창기부터 사도들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행했으나, 그들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이 점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신적 개입이나 돌보심의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믿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부어졌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에 개입하신 증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다.

사도들이 주님 곁으로 떠나신 직후, 신성한 보호와 사랑에 대한 모든 기적적인 나타남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로 모든 시대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왔는데, 이는 그들에게 신성한

은총이 기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듯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선포해 왔기 때문이다.
로마서 1: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 세상에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19; 사도행전 1:8). 과거 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증인으로 불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실행하시려 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증언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며 다스릴 자들의 부활이라는 기적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의 경지에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위대한 미래의 기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에 관한 사실을 선포함에 있어, 예수의 증인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서의 승리로 인도하시며,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앓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불타는 용광로에서 세 히브리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모든 선한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중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들의 증언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높이 들려 높이 계신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바울의 증언을 믿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18-23).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무릎이 꿇고, ...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또 다른 증언을 받아들이고 전파합니다. 빌립보서 2:9-11

이 예수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사신으로서 이 자리를 기꺼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라는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아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23). 그들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들을 자신의 우편에 있는 이 높은 지위에 높이셨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들은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읊조리며 나아갑니다. 이는 세상을 위한 구속주이자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와, 죄인을 무죄로 선언할 수는 없었으나 구속자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실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의 모든 측면이 실행되고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쓸려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며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널리 알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권한을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의 영적 단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초청받은 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권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온 인류를 위한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선포할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세상

예수님의 증인들이 시대를 통해 전해 온 이 영광스러운 증언은 세상을 회심시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세상을 회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증언 사역의 주된 성취가, 이 특별한 무리에 합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자격을 입증할 사람들을 찾아내어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다른 이들도 이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세상에 임할 왕국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이들도 이 메시지를 들었으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그제야 [복음 시대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4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개별 증인들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촛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촛불이 어둠 속으로 그 빛을 멀리까지 비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비추는 복음의 빛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그 빛과 그 빛이 나타내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큰 축복이 되지만, 바깥 세상은 그저 희미한 빛줄기만 볼 뿐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비추는 복음의 빛이 바다 가장자리에 있는 등대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등대는 바다를 밝히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항해자를 인도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시대 동안 진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이끄는 “좁은 길”을 찾아 그 길을 걷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2:7

“해와 같이”

현재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끝”이 올 때까지—즉 시대의 끝이 올 때까지—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세상의 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천국의 자녀들”로 불리며, 추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천국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38, 43

이처럼 해처럼 빛나는 일은, “그 날개에 치유가 있어” 온 인류를 비추고 축복하기 위해 떠오르실 것으로 예언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4:2). 예수의 증인들은 함께, 즉 승리한

교회로서 그 “의의 태양”의 일부가 될 것이며, 예수와 함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11:9; 40:5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소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이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빛 그 이상이 될 것임을 의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빛을 비추어 온 방식은 후자의, 제한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세상의 어둠은 빛을 미워하므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보더라도 대개 그 빛을 외면합니다. 사탄이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4

“의의 태양”이 “그 날개 아래에 치유가 있는” 채로 떠오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빛을

발할 때, 사탄은 묶여 “다시는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3). 이처럼 “어둠”의 통치자(에베소서 6:12)가 그 영광스러운 “해”로부터 비추는 빛을 방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온 세상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알게 될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4-6

온 인류를 깨우치는 이 사역에는 천 년, 즉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인 천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먼저, 살아 있는 세대는 선지자 스바냐가 언급한 “순수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8, 9). 이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의 때”에 상징적인 땅—즉 현재의 악한 체제들—을 멸망시킨 직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 12:1

그 “불”을 겪는 많은 이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할 것이므로,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후, 죽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각 세대가 무덤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도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가 천년 왕국 내내 비추겠지만, 죄와 죽음의 긴 밤이 가져온 어둠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그 시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의의 태양”이 비추는 기간인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독특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7

선지자는 이어서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합니다(스가랴 14:8). 요한계시록 22:1, 2에는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양쪽에는 필요한 모든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상징적인 “생명나무”가 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 생명수를 무료로 받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17

이처럼 아름다운 상징들의 조화를 통해, 현재 예수님의 증인들이 수행할 미래의 사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전히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무리, 즉 머리와 몸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이 완료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빛이 온 인류에게 드러날 때, 모든 이에게 “오라. ... 생명수를 거저 받으라”는 초대가 전해질 것입니다.